

전주, 천년의 기록을 찾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과거 삶의 모습이 담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주 관련 기록을 수집에 나선다. 전주시는 각종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23일까지 한 달 간 시민들의 삶이 담긴 자료와 전주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제1회 전주관련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집대상은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 이전 전주 관련 기록물이며, 인화사진·동영상·오디오·필름·비디오매체 등의 시청각류 기록물과 일기·편지·메모수첩·쪽보·책자·개인이 보관하는 공문서류 등의 문서류 기록

시, 내달 23일까지 '전주관련 기록물 수집 공모전' 서책과 타자기·편지·월급봉투·일기장 등 접수

물, 생활용품·기념품·타자기·시계·필기류·사진기 등과 같은 박물관 등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전주에서 출판된 방각본인 완판본 등 소중한 전주의 기록물과 20세기 초부터 사용했던 종이로 된 월급봉투 등 과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 1960년대 서학동 탄광입구의 흑백사진 등 지금은 사라진 옛 전주의 모습을 간직한 사진 등이다. 또, 앨범과 상장, 포어, 포스터 등 분야에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접수는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hyungsuk1@korea.kr) 또는 전주시청 총무과(063-281-5087)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대상 1명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20명 등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입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입상작을 시에 기증 또는 위탁

할 경우에는 입상자의 명예를 높이는 한편,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기증·위탁된 민간기록물을 영구보존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에는 입상작을 전시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민선5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는 과거부터 전주사고와 조선왕조실록, 완판본 및 전라감영 목판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기록·인쇄·출판의 중심지로 이러한 전주에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사실에 매우 깊은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바탕으로 '전주정신(기록원) 설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효자도서관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24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독서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자도서관과 평생학습관 현장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전주시 11번째 시립도서관으로 개관한 효자도서관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독서프로그램 운영 내용 등을 점검했다.

위원장인 김은희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등을 견학하며 이날 전주시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앞으로 다양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다."

위원회는 또 인후3동에 위치한 전주시 평생학습관을 찾아 인문학 활성화,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등 3개 분야 16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근 위원장은 "전주는 전국에서 도서관이 제일 많은 도시로 독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의의들을 위해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등을 견학하며 이날 전주시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앞으로 다양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서관



불법조업 중국어선 "계 셋거라" 24일 오전 해양경찰이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2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추정되는 중국어선을 발견 한·중 어업협정선 외측으로 밀어내는 퇴거작전을 펼쳤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라감영 테마거리 현장방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4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선미촌 문화재생산업, 전라감영복원과 연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은 성매매업소 또는 폐?공간 건물을 매입하여 예술공방 등 문화재생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날 위원회는 선미촌 내 빈집을 깎아리듬을 엮었던 곳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문화재생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재 기자

도박장서 돈 잃고 흥기 휘두른 60대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4일 도박장에서 돈을 잃자 지인을 흥기로 찢은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15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이발소에서 지인들과 속칭 도박을 하다 100만원을 잃자 돈을 탄 황모(59)씨를 흥기로 7차례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도박으로 돈을 잃고 "돈만 따고 먼저 가는 게 어디 있냐"며 품싸움을 벌이다 황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전주 신중양시장, 시니어 패션쇼 개최

28일 오후 3시 50분부터

전주 신중양시장이 실버패션쇼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전통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주시와 신중양시장상인회(회장 반봉현),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박광철)은 오는 28일 오후 3시 50분부터 신중양시장 특설 무대에서 시니어 패션쇼 '제2회 옷장을 부탁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맛과 멋이 살아 있는 전통시장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장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처음 개최돼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실버패션쇼를 확대한 것이다. 올해 '옷장을 부탁해' 패션쇼에는 지역 유명 디자이너와 지역 패션샵이 함께 패션쇼를 기획하고, 고교 연합 패션동아리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세대 화합의 패션쇼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 패션쇼에 대한 고정관념

에서 탈피해 전통시장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르신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시는 시니어패션쇼가 신중양시장만의 문화행사로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시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전주남부시장이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신중양시장과 모래내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돼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젊은 디자인이 입혀지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이 시민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한옥마을 관광효과 전주천 너머로

시, 국립무형유산원 연결 인도교 명칭제정 공모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관광효과를 국립무형유산원과 서화동예술촌 등 전주천 너머까지 확산시킬 명품 인도교에 시민들이 지어준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017년 8월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사이에 길이 86m, 폭 4m의 인도교를 건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천 명품인도교 건설은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전주를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도시 여접사업이다.

시는 한옥마을에 연간 천만명이 찾는 등 관광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국립무형유산원 건립과 산성천 정비 등으로 한옥마을 주변으로 관광지역 확대를 위한 동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주천 인도교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인도교 설치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스토리텔링 구상을 위한 지역주민 자문과 민간·환경단체, 역사·문화교수, 시의원 등 전문가들과 교량 디자인 등에 대한 회의 및 경관심의를 통해 인도교 설치 조감도를 결정했다.

또, 지난 8월 인도교 설치를 위한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전주천 인도교 명칭 제정을 위한 시민공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의 명칭을 붙일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명칭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명칭제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자 1명에게는 총 10만원 상당의 은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양연수 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고 주변 지역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스토리텔링 구상을 위한 지역주민 자문과 민간·환경단체, 역사·문화교수, 시의원 등 전문가들과 교량 디자인 등에 대한 회의 및 경관심의를 통해 인도교 설치 조감도를 결정했다. 또, 지난 8월 인도교 설치를 위한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